

# 광주지방기상청-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

- 장성군 배후마을 주민 대상 폭염·한파 피해 예방 협력 강화-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정현숙)과 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(이사장 심우정)는 장성군 배후마을 이동장터를 활용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영향예보와 위험기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, 폭염·한파 등 기상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0일(금)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협약은 고령층의 경우 스마트폰·앱 기반 기상정보 접근이 어려워 폭염·한파 등 위험기상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, 장성군에서 운영 중인 배후마을 이동장터를 생활밀착형 기상정보 전달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기상청은 폭염·한파 영향예보와 단계별 행동요령, 기상특보,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하고,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동장터 차량의 전광판외부 모니터음성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배후마을 어르신들에게 기상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게 된다.
- 특히 여름철에는 이동장터 일정에 맞춰 폭염 피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추진해,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5시) 야외활동 자제 안내와 함께 생수 전달,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안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.
- 장성군의 배후마을 이동장터는 농촌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생필품 판매와 함께 어르신 안부 확인 등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기상정보 전달 기능까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

- 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심우정 이사장은 “배후마을 이동장터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 복지 서비스”라며, “이번 협약을 통해 기상정보가 생활 속 안전 정보로 전달돼, 어르신들께서 기상 위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-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“폭염과 한파는 예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, 어르신들께서 직접 듣고 이해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.” 며, “이동장터를 활용한 영향예보 전달이 농촌 오지마을 기상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고령층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주형돈 (062-720-0320)
		담당자	전문관	김문용 (062-720-0355)
<공동>	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팀	책임자	팀 장	정우성 (061-392-4560)
		담당자	사 원	이성학 (061-392-4560)